



하나님의 새일과 열 가지 말씀(b)



ICE BREAK

TIME

요즘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드라마 등)

▶ 나눔: 한 주간 받은 은혜 및 기도응답을 나누어요.

▶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 기도: 구역원 중

▶ 성경봉독: 출 20:4-6, 골 1:15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열 가지 말씀(데칼로그, 십계명)의 두번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으며 바른 예배의 방식과 잘못된 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우상은, 그 안에 “신이 임재한다고 보았고 그 우상이 신을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김지찬, 데칼로그, 142). 그래서 우상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신으로 인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김지찬, 143).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에 묶어 놓고(localization motive)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manipulation motive)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운 곳에 세워 놓은” 것이었습니다(김지찬 145).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 조종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 어떤 형상으로든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셧고(신 4:12, 36, 김지찬 147),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출 20:22-23; 신 4:15-19).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는 않았어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두 번째 말씀(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골1:15와 요 1:18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선언합니다.

〈골 1:15, 개역개정〉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 1:18, 개역개정〉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일 1:1, 개역개정〉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 14:8-9, 개역개정〉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곧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요 14:6; 요 14:9).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형상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 14:6)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백금산, 만화 십계명)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세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지성적으로 파악된 지식을 경험하는 것(마음과 감성 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충만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성과 감성으로 알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처럼 살아가는(닮아가는) 순종(의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회복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창 1:26-27).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시며 만드시사 “이 땅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대표자요 대리자로서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죄를 증가시켜 망하는 길로 갈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원칙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즉시 살아나게 되나 아직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잔존하는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갈때(마음, 성품, 능력...)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입니다.”(백금산, 만화 십계명)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죄를 짓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에 데칼로그의 둘째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이다(김지찬 164).

▷ 나눔과 적용

1.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우리를 삶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 까요?
3. 서로 결단하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 기도(기도제목 별지 참조)

▷ 찬양 및 구역봉헌 (20장)

▷ 주기도문

▷ 교제의 시간

셀원(구역)의 기도제목과 아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 2018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소서. 매일 삶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별, 지혜,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예배, 교제, 사역, 훈련, 전도)되게 하소서.
- 참된 부흥(진실한 회개, 간절한 기도, 진리의 말씀,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남여전도회의 큰 부흥을 주시고, 신설되는 청년부 부서예배 위에 성령의 폭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 교회사역위에 큰 은혜주소서(성장반, 교리대학, 성경대학, 제자훈련, 교회공사(1층,2층), 40일특별새벽기도회, 새생명축제, 체육대회, 바자회 등).
-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 인도와 열방 복음화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 담임목사님 큰 은혜 주시사 성령충만, 성결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건강,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며 부교역자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소서.
- 교회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안정화 사역의 은혜 주시고 교회의 언론 및 법적 문제 해결해 주소서.
- 성도의 시험과 악, 사단의 역사로 부터의 보호해 주소서. 교회내 쏜뿌리, 당짓는자, 이단자, 경망스러운자, 거역하는자, 반항하는자, 반역자, 다른권위자, 교만한자, 교회를 임의로 떠나는 자 등이 없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즉각 치리하여 주시사 악행을 그치게 하소서.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켜 보호해 주소서. 목사님께 강력한 치리와 수습의 은혜를 주소서
- 모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용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 모든 성도의 축복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 2018년 개인의 기도제목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소서.

보라 새 일을

이길로
made by musicday

보라 새 일을— 행 하 시 리 니—

이 제— 곧 나— 타 내 리 라—

주 를 위 하 여— 지 으 신 백 성—

주 의— 찬 송— 부 르 게 되— 리—

광 야 의 물 솟— 아 나 리 라—

사 막 에 꽃 피— 어 나 리—

이 전 일 들을— 녀 희 는 기 억 치 말 며—

옛 적 일 들을— 생 각 지 도 말— 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성수 사 박재윤 곡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아주많이
- 요 -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그것뿐예 요 사 랑 한 다 아 들 아
내 딸 아
내 가 너 를 잘 아 노 라 - 사 랑 한 다 아 들
내 딸
아 아 네 게 축 복 더 하 노 라 -

Copyright (C) 1995 김성수, 박재윤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